

Digital Currency Watch



주식전략/시황. 한대훈 / 3773-8515, handaehoon@sks.co.kr

2021/05/04

이더리움의 시간

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인 이더리움



자료: REFINITIV, SK 증권

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수는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



자료: Etherscan SK 증권

이더리움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. \$3,200 달러를 넘어섰고, 국내에서도 400 만원을 돌파했다. 이제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15%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상승세다. 이더리움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전해진다. 지난 4 월에 진행된 베를린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던 가스비(수수료)가 크게 절감됐다. 이를 기반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.

지난 자료에서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. 수수료(가스비)와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단점이지만, 지난 4 월의 하드포크 성공, 그리고 오는 7 월에 예정된 런던 하드포크마저 성공한다면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소되고, 이로 인해 이더리움의 생태계 확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 특히, 7 월의 하드포크 때는 네트워크상 비용문제를 다룰 EIP-1599 가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다.

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NFT, 디파이(DeFi)는 모두 이더리움 기반이다. 디파이의 고객예치금은 이미 760 억달러에 육박했다.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주요 경매사에서 NFT 를 채택한데 이어,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NFT 시장을 6 월에 개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영역을 점차 확대중이다.

유럽투자은행(EIB)은 1 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이더리움을 통해 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권도 넥스트 비트코인으로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. 즉,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에 걸림돌이 되던 수수료, 전송속도 등의 문제점들이 속속 해결되면서 영역이 더 확대되고 있다. 이제는 이더리움을 주목해야한다.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.